



## '브리튼즈 갓 탤런트' 파이널 진출! 영국을 열광시킨 싸울아비

우리 대학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가 영국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 series 17)'에서 골든 버저를 획득해 파이널에 진출했다.

'브리튼즈 갓 탤런트'는 폴 포츠, 수잔 보일 등 톱스타를 배출한 세계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단일 대학 태권도 시범단이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골든 버저를 받은 것은 최초이며 이 골든 버저로 싸울아비는 준결승을 거쳐 결승까지 진출하게 됐다. 6월 2일 파이널에서 아쉽게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해외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싸울아비는 약 4분 동안 화려한 고난도 격파와 깃발 퍼포먼스, 강인한 창작 품새를 조화롭게 선보이며 심사위원을 사로잡았다. 아만다 홀든, 알레샤 디슨, 브루노 토니올리 심사위원은 "오늘의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쏟았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쇼에서 본 무대 중 최고였다"라는 감상평을 전했다. 특히 까다로운 심사평을 하기로 유명한 사이먼 코웰은 "10점 만점에 11점짜리 공연이다"라며, 한국을 대표하여 멋진 공연을 보여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싸울아비팀의 공연 주제인 무훈(武魂)은 과거 활, 창, 칼을 자유롭게 사용했던 동양 무사들의 정신이나 근본이 오늘날 태권도정신으로 계승된 것임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을 기획한 태권도학과 이숙경 교수는 "전주시가 실전 태권도의 원류지인 만큼, 첫 번째 작품은 태권도의 우수성을 담고자 했다"라고 전했으며, 싸울아비팀 정미주 부주장은 "스토리에 맞게 연기를 조금 더 연구하고 디테일을 신경쓰려고 했다. 그것이 우리의 특별함이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무훈(武魂) 공연은 관광콘텐츠 태권도 공연 공모전에서 1위를 거두고 태권도 진흥재단 공연 사업에도 2회 연속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가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15일 ~ 6월 23일 제2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며, 6월 15일 개회식 식전 공연으로 싸울아비가 태권도 공연을 선보였다.

기사 제공 | 문화융합대학 태권도학과

## 우리 대학,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선정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에 3년간 약 90억 원 지원-

우리 대학은 지난 4일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에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학과·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5개, 24년도 3개 등 총 8개 사업단이 운영된다.

우리 대학은 호남권 유일의 주관대학으로 수도권(동국대), 강원권(한림대), 충청권(한남대), 영남권(경북대)의 참여대학들과 함께 '지방 시대에서의 지역 가치 창출'을 주제로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 □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HUSS) 신규 선정 연합체

대주제	연합체(컨소시엄)		권역비율	
	주관대학	참여대학	수도권	지방
지방 시대에서의 지역가치 창출	전주대	경북대, 동국대, 한남대, 한림대	20%	80%
공동체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구조 변화 대응	서강대	단국대, 대전대, 상명대, 원광대	60%	40%
인류와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공생	광운대	국민대, 선문대, 영남대, 호남대	40%	60%

우리 대학 컨소시엄은 '지역 가치 혁신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과 상생을 선도하는 'Local C-nergy'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앞으로 3년 동안 대학 간 융합·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 학위과정과 대학별 특화된 마이크로 디그리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

구분	대학별 학위명	대학별 참여학과
전주대 (주관)	로컬시너지 융합 문학사 (디지털레터리치 전문가 과정)	-한국어문학창작학부, 역사콘텐츠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어문화학과, 중국어중국어학과, 웹툰문화콘텐츠학과, 신학과경배찬양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관광경영학과, 게임콘텐츠학과, 농식품경영학과, 미래르바학부, 로컬벤처학부
경북대 (참여)	로컬시너지 융합 문학사 (지역혁신 디자인 전문가 과정)	-국어국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본학과, 한문학과, 지리학과, 지리교육과
동국대 (참여)	로컬시너지 융합 문학사 (뉴미디어 시대 지역전문가 과정)	-국어국문콘텐츠창작학부, 일본학과, 사학과, 영화영상제작학과, 건축공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지리교육과
한남대 (참여)	로컬시너지 융합 문학사 (로컬커뮤니티 전문가 과정)	-국어국문창작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한림대 (참여)	로컬시너지 융합 문학사 (길잡이 전문가 과정)	-국어국문, 사학, 철학, 영어영문, 중국학, 러시아학, 디지털인문예술, 자유교양전공

주관대학 사업단장을 맡은 이용욱 교수(한국어문학창작학부)는 "우리 대학은 혁신과 상생을 가장 잘 해왔고 잘해야 하는 지역대학이다. 문화·관광이라는 지역 특화 가치를 디지털 전환이라는 혁신 가치와 접목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비전을 밝혔다.

기사 제공 | 인문콘텐츠대학

## “우애 정신으로 동아시아 평화 이룩”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특강

지난 5월 27일, 우리 대학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이하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일본 공익재단법인 ‘유아이’와 함께 방문해 특강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표적 지한파인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의 제93대 총리를 지냈으며, 유아이재단 이사장,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이사장, 국제아시아학회 명예고문 등을 역임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우리 대학에서 명예 행정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강은 ‘나에게 우애(友愛)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양자택일이 대부분인 서양 사상과 달리 동양의 화(和) 사상은 주변인 및 주변국과의 화합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며 우애 사상이 한·중·일 삼국 관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토야마 전 총리는 유럽 연합의 전신이 된 유럽 공동체를 우애 정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독재가 자행되던 20세기 유럽 공동체의 탄생 배경은 유럽의 존속을 위한 협력도 모였다. 유럽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치된 생각이야말로 우애라는 개념의 근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로서 아무

리 사죄해도 부족하며, 피해국인 한국이 “이제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무한한 책임을 지고 사죄를 계속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강연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환경 문제를 다뤘다. 우리 대학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조를 이뤄 음식물 쓰레기,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 일본어로 토론한 뒤 조별로 토론 내용을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박진배 총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방문을 결정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에게 감사하다.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6월 30일까지 하토야마 전 총리가 주관하는 소논문 공모전을 진행한다. “나에게 우애(友愛)란?”을 주제로 한 소논문을 원어(일본어) 또는 외국어(한국어, 영어) 중 하나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원어(일본어) 부문 1위 100,000엔, 외국어(한국어, 영어) 부문 1위 80,000엔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자세한 안내는 일본언어문화학과(063-220-2311)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이견우 기자(virtuoso@jj.ac.kr)

▲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특강을 하는 하토야마 전 총리 모습이다. (사진: 송단비 기자)

## 공과대학,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특장차 부품 설계 경진대회 도지사상 수상



지난 5월 17일, 우리 대학 공과대학 학생들이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에서 실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특장차 부품 설계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 융합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인벤터(Inventor)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친환경특장차 부품을 설계하여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 분야를 이끌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군산대학교 등 전북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1명이 참가했다.

우리 대학 13명의 참가자 중 박승현 학생(기계자동차공학과 24)은 금상(도지사상)을 수상했고, 정수민 학생(기계자동차공학과 19)은 특장차협회장상을 수상했다. 그 외 모든 학생이 폴리텍대학장상을 석권했다.

금상(도지사상)을 수상한 박승현 학생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던 것은 우리 대학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에서 진행한 인벤터 캠프 덕분이다.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지도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홍성주 교수님과 김진수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도 다양한 경진대회 참여를 독려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기사 제공 |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 2024학년도 패션산업학과 졸업작품패션쇼 ‘CONNECT’ 개최

지난 6월 5일 수요일, 웨딩카페 아엘르에서 패션산업학과 졸업작품 패션쇼가 진행됐다.

‘CONNECT’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패션쇼는 4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한 학생들 23명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담아냈다. 이번 졸업작품 패션쇼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준비해 온 행사로, 전통의상디자인(박현정 교수), 창작의상디자인(최진희 교수), 패션컬렉션(권상희 교수) 수업에서 작업한 69벌의 작품을 총 6개의 스테이지에서 선보였다.

첫 번째 스테이지 ‘미무(迷霧)’는 짙은 안개 속에서 화이트와 블랙이 피어오르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두 번째 스테이지 ‘Page 0: 白’은 미니멀리즘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실루엣의 화이트 셔츠를 선보였다. 세 번째 스테이지 ‘Once Upon a Time’은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고 드넓은 서부를 개척한 아메리칸 원주민과 이주민의 삶 속 지혜와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네 번째 스테이지 ‘Le Festin’은 프랑스어로 향연, 연회라는 뜻으로, 20세기 역사적인 디자이너들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우아한 연회 분위기로 풀어냈다. 다섯 번째 스테이지

‘Flowing Waves’는 일렁이는 물결, 생동감 넘치는 곡선, 푸른 빛깔의 파도에서 영감을 받아 우아하고 신비로운 미니드레스를 선보였다. 여섯 번째 스테이지 ‘A Ticket to Wonderland’는 어릴 적 꿈꿔온 동화 속 세계를 환상적으로 표현했다. 스테이지가 끝난 후에는 박진배 총장과 롯데백화점 전주점 강정구 점장이 우수 작품을 시상했다.

패션산업학과는 2000년 신설된 이후, 매년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패션 업계와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졸업작품 패션쇼는 패션업계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증대시키고, 패션기업과 협력하여 인력 양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전주 시민을 초청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 <씨름부 임종길 감독>

- Q. '전국장사씨름대회' 대학부 단체전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대회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A.** 우선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수 사기를 위해서 짧은 휴식을 보내고 체력과 기술훈련을 병행하며 차기대회 우승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Q. 씨름부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씨름부를 자랑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A.** 씨름을 하면 체격도 좋아지고 인물도 좋아집니다. 투기종목이면서 타격이 없는 운동이라 얼굴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몸도 좋고 인물도, 성격도 좋습니다.
- Q. 1학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2학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A.** 선수들이 정규 수업을 받으면서 운동하기 때문에 솔직히 운동 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4학년 학생 선수들은 취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성적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개인 운동과 야간운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 <축구부 이지우 주장>

- Q. 우리 대학 축구부가 이것만큼은 타 팀보다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점이 있나요?**  
**A.** 저희는 '한 걸음 더' 뛰는 팀입니다. 수비수부터 최전방 공격수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고 저희의 플레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다른 팀에 비해 선수단 인원이 많은 편인데, 그만큼 각 포지션에서 개인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라운드에 누가 들어가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탄탄한 스쿼드를 바탕으로 상대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 Q. 현재 '2024 대학축구 U-리그1'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구부의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저희의 목표는 언제나 '우승'입니다. 저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고, 팀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와 믿음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중입니다. 또한 지난 경기들에서 얻은 값진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매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우 여러분께서 더운 날씨에도 경기장을 찾아와 응원해 주시는데, 반드시 우승 트로피로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열정과 투지로, 2024년을 '최고의 시즌'으로 만들겠습니다!
- Q. 1학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2학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A.** 전반기가 마무리되면 태백으로 이동해 '추계대학축구연맹전'을 치르게 되는데, 저희 축구부가 전주대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이어지는 후반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전주대학교 인조구장에서 축구부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도 더욱 힘내서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4일에 안동과학대학교와의 '2024 U리그1 대학축구 4권역'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3시에 우리 학교 인조A구장에서 펼쳐 집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 정미주 부주장>

- Q. '브리튼즈 갓 탤런트' 파이널까지 진출하며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태권도 시범단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저희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2019년부터 KTA공연대회 1위를 하면서 공연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 시범단 친구들은 시범 공연을 하다보니 세부적인 연기와 입장부터 퇴장까지 모든 표현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구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까지 볼까?'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 신경을 쓰다보니 거기서 무대 디테일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 Q. '제2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대회를 통해 어떤 것을 얻어갔으면 하시나요?**  
**A.** 선수분들이 열심히 대회 준비를 해 주신 만큼 준비 과정 속에서 후회없는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Q. 1학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2학기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A.** 1학기의 좋은 결과를 통해 다른 외국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 파견과 이탈리아 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을 위해 몸 관리 잘해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도서관 이용 백서

세계적인 건축가 아론 탄(Aaron Tan)이 설계한 '스타센터'의 중추인 우리 대학 도서관. 방대한 자료량과 더불어 최신 장비 도입 및 지속적 자료 갱신과 편의 시설 증설로 개관 이래 우리 대학 재학생, 졸업생,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도서관 이용 백서를 통해 우리 대학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 학생이라면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아직 도서관이 낯선 학생이라면 우리 대학 도서관과 친숙해지길 바란다.

## <시설 안내>

### 유피아(U-Pia)

도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작은 광장, 정식 명칭은 유피아(U-Pia)다. 우리 대학 출신의 주요 인사와 우리 대학을 위해 기금을 위탁한 이들의 명패가 걸린 '슈퍼스타존'과,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탁자가 설치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자유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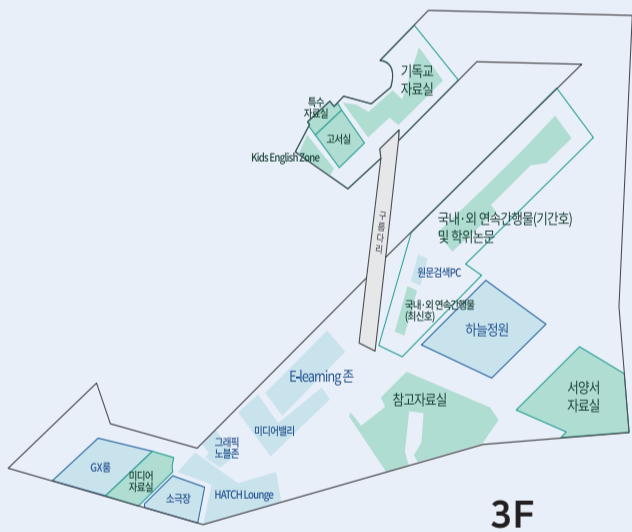
정문 입실 기준 우측 안내소 옆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학습 및 독서 공간인 자유열람실 1, 자유열람실 2, 노트북존이 있다. 자유열람실 1은 개방형 열람 책상 240석, 1인 책상 98석이, 자유열람실 2는 개방형 열람 책상 254석, 1인 책상 78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트북존은 무선랜과 콘센트가 구비된 열람 책상 142석이 설치되어 있다.

### 스터디룸

대출실 우측의 출입문을 통과해 방음 카펫을 따라 걷다 보면 좌측에 보이는 유리 벽면 너머의 공간이 스터디룸이다. 6인실 1개, 8인실과 10인실 2개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화이트보드, TV, 화상 회의 카메라, 노트북 등을 대여 및 사용할 수 있다.

### PC존

PC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2층 대출실 앞 18석, 700번대 서가 앞 14석, 3층 국회도서관 원문 검색 전용 PC 10석, E-Learning존 72석, Kids English Zone 6석의 PC존이 마련되어 있으며,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 수강, 문서 작업, 그래픽 작업 등이 가능하다.



### 하늘정원

2층 대출실 옆의 계단을 오른 후 직진하면 좌측에 보이는 야외 공간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 의자형 계단이 있다. 평소에는 야외 수업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비정기적으로 영화 상영, 음악회 등 문화 행사의 장으로 활용한다.

### 미디어밸리

미디어밸리는 크게 E-Learning존과 DVD 감상용 좌석으로 나뉜다. 창 측의 휴식용 소파를 제외한 모든 시설은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E-Learning존에는 온라인 강의 수강, 문서 작업, 그래픽 작업 등이 가능한 PC 좌석 72석이 비치되어 있다. DVD 감상용 좌석은 2인석 12개, 4인석 4개, 6인석 2개의 구성이며, HATCH Lounge 방면에 있는 미디어 자료실에서 대여한 DVD를 감상할 수 있다.

### 미디어 자료실

20세기 영화부터 최신 개봉 영화까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자랑하는 미디어 자료실에서는 DVD를 대여하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분기별 영화 추천 행사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소극장

미디어 자료실 옆의 소극장은 대형 스크린과 서라운드 음향으로 영상 매체에의 완전한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작은 영화관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 가능하다.

### HATCH Lounge

올해 3월에 개관한 융·복합 창작 전진기지 C-nergy Lab 이전인 2018년에 One-Stop 창의복합단지 HATCH Lounge를 조성했다. HATCH Lounge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 쉬거나, 누워서 잠을 청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과 더불어 VR게임, 레이싱 게임, 3D프린터, VOD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그래픽 노트북존

HATCH Lounge 휴식 공간 내에 마련된 그래픽 노트북존에는 마블, DC, 스타워즈 등 다양한 브랜드 만화의 번역서가 비치되어 있다.

### GX룸

단체 활동(Group Exercise)의 영문 약어인 GX를 따서 명명한 GX룸은 회의실보다 넓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의 장으로 활용 중이다.

### 애플리케이션 기능 안내

전주대학교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모바일 열람증 이용, 도서 대출/연장/예약뿐만 아니라 시설물 예약이나 도서관 행사 일정 확인 등이 상시 가능하다. '좌석 배정' 메뉴에서는 열람실(자유열람실1, 자유 열람실2, 노트북존)과 PC존 좌석, '시설물 예약' 메뉴에서는 스터디 룸과 미디어밸리 DVD 감상용 좌석의 예약 및 관리가 가능하다. 시설물 이용 종료 후에는 다른 이용자를 위해서 반드시 예약 세부 정보 화면에서 좌석을 반납하자.

## <주요 프로그램 안내>

'독서 로드맵'은 독서 습관 형성 및 글쓰기 능력 함양을 돕는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참여 시 최대 50점의 CP를 획득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 기초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도서관 이용자 교육', 한 권 독서를 목표로 매일 20분 이상 독서를 한 뒤 독서 노트 및 독후감을 작성하는 '북 모닝, 북나잇', 학기별로 팀을 구성해 독서 토론 및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슈퍼스타 독서 클럽', 도서관 홈페이지의 [JJ 읽는 약국] 게시판에 인간관계, 학업, 진로 등 각종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하면 선별적으로 개개인에 도움이 되는 책을 증정받는 '읽는 약국', JJ 권장 도서 서고에 있는 책을 독서 후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는 'JJ 권장 도서 독후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건강하고 유익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며 CP를 모아 보자.

## <특수기간 중 이용 안내>

학기 중 일반 자료실은 평일 9시부터 21시, 토요일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다. 자유 열람실은 연중무휴로 6시부터 23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한다.

방학 중에는 일반 자료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7시에 걸쳐 이용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다. 자유 열람실은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연중무휴로 6시부터 23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 우리 대학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만남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통해 취업 역량 늘려 -



**2024학년도 빌드업 프로젝트**  
**JJ 진로부트 동아리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4. 6. 3.(월)~6. 14.(금)  
**모집인원** 20개 팀(총 60명, 3~5명 1팀 구성)  
**모집대상** 재밋고 빌드업 프로젝트 참여자 중 1~2학년 재학생

**활동기간** 2024. 6.~9.(총 3개월)  
**활동내용** 진로설계(팀활동)/진로탐색(개인활동)

**진로설계(팀 활동)**

- 현직자 직무 인터뷰(3회)
- 현직자 멘토 제안 과제 수행
- 교내외 공모전, 경진대회 참가
- 전공심화 연구 및 개발활동
- 영상, 전시회 등 창작 결과물 제작

**일 20시간 활동시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급**

**진로탐색(개인활동)**

- 기업탐방, 현장견학, 단기 직장체험 등
- 직업체험 박람회, 포럼 참가
- 진로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수
- 집단상담, 개별 심리검사 참여 후 해석상담
- 희망기업/직무분석 보고서 작성 제출 등

**월 4시간 이상 필수 활동 참여**

**신청방법** 참여신청서, 활동계획서  
 zzzx1023@jj.ac.kr 메일 제출

**기타문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팀  
 063-220-2798

올해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이하 재밋고) 프로그램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한다.

재밋고는 재학 단계부터 심층 상담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진로 탐색부터 취업 성공까지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53개 대학이 참여하며 직업탐색, 1:1 심층 상담,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취업역량 진단, 취업 활동 계획수립, 훈련 및 일 경험 순으로 진행된다.

빌드업 프로젝트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직업탐색과 심층상담 기반의 관심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여 희망 직업 정보를 파악하고 조기 진로 설계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기초 직업 체험으로 기업을 탐방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점프업 프로젝트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목표 직업과 취업 활동 계획을 설계하고, 개인별 맞춤형 훈련과 일 경험 등을 연계하여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입사 지원 준비를 생각하는 학생은 자기 주도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서 교육, 면접 컨설팅, 채용 박람회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20시간 취업 준비 활동 인정 시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반해 조금 더 취업 준비를 고민하는 학생은 서비스 참여형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장 실습, 구직 스트레스 상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20시간 취업 준비 활동 인정 시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6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JJ진로부트 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JJ진로부트에서는 재밋고 빌드업 프로젝트 참여자 중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20개의 팀이 진로 설계 및 진로 탐색 활동을 진행한다. 진로 설계 활동은 현직자 직무 인터뷰, 현직자 멘토 제안 과제 수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로 탐색 활동은 직업 체험 박람회 참가, 희망 기업 직무분석 보고서 작성 제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은 참여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이메일(zzzx1023@jj.ac.kr)로 제출하면 완료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팀(063-220-2798)에서 할 수 있다.

# 달라진 학부·학사 구조와 전과 제도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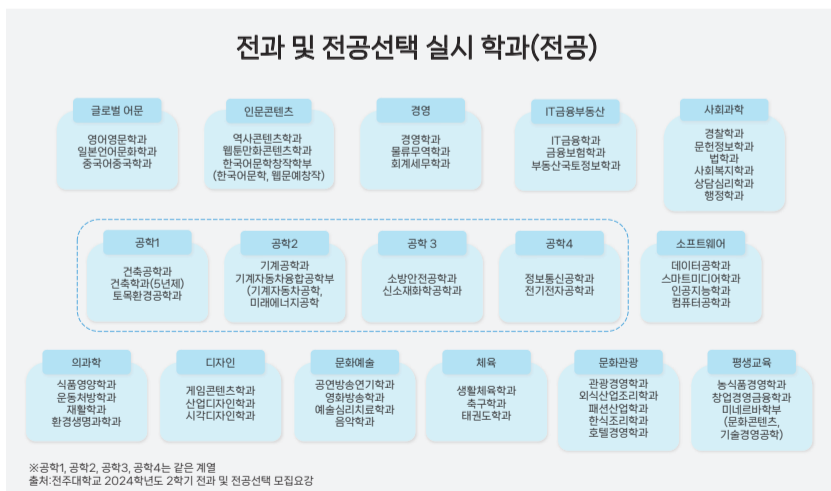
## 학부·학사 단위 구조 개편 주요 내용은?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31일 학부·학사 단위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반려동물산업학과가 신설됐으며,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두 전공이 생기면서 기존 학과들은 대부분 1명에서 20명가량 입학정원이 감소했다. 입학정원이 늘어난 학과는 간호학과가 유일해 81명에서 101명으로 신입생 모집을 확대했다. 또한, 인문콘텐츠대학과 경영대학은 통합모집을 시행한다. 통합모집이란 신입생을 학과 단위로 선발하지 않고, 단과대학 전체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세부 내용에는 인문콘텐츠대학의 한국어문학장작학부와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의 학과제 전환이 있다. 한국어문학장작학부는 한국어문학과로,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는 기계자동차학과로 변경됐다. 또한, 문화융합대학의 공연방송연기학과와 음악학과는 공연예술학과로 통합 신설됐다.

## 전과 제도 이렇게 변한다!

학사 단위 구조의 개편으로 전과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과란 학칙에 따르면 소속 학과를 바꾸고 싶은 학생이 전과를 신청해 총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전공 선택이란 현재 소속 학부 및 계열 내에서 학과(전공)를 선택하는 것이다. 학부에 소속된 학생은 소속 학부 내에서 전공을 선택한다. 계열에 소속된 학생은 현재 계열 내에서 학과(전공)를 선택한다. 계열은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전과 및 전공선택 실시 학과(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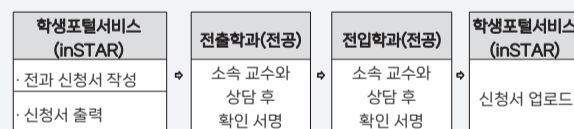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사범대학 및 보건 계열 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관리학과, 작업치료학과)는 1학기에만 전과자를 모집하며, 전과 전형(필기고사, 면접고사)이 유지된다. 또한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은 다른 단과대학으로 전과가 불가하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 또는 특성화고(실업계)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 전과가 가능하다.

전과 제도에는 네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횡수의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전과 신청은 1개의 모집 단위에만 가능하다. 둘째, 전과를 위한 필기, 면접고사가 사라진

다. 위에 언급한 사범대학 및 보건 계열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의 전과 전형이 폐지된다. 셋째, 변경 전에는 2학년 이상(4학기 수료)일 경우 신청 자격이 부여됐지만 바뀐 전과 제도에서는 입학 후 그 다음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전과 정원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30%로 제한했으나, 더 이상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과 신청은 inSTAR에서 전과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뒤, 전출·전입 학과에서 소속 학과 교수와 상담 후, 확인 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inSTAR에 올리면 된다. 주의할 점은 전출·전입 학과 두 곳 모두의 소속 학과 교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올린 신청서의 식별이 어려우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을 한 이후 전과 신청이 가능하다.

## 전과 신청 방법



## ▲ 전과 신청 방법 순서도

전공 선택은 계열 및 통합모집 입학생이 입학 후, 다음 학기 시작 전에 실시하는 것이다. 전공 선택과 변경 방법은 inSTAR 학사관리에서 전과·전공 선택 부분을 선택하고, 전공 선택을 한 뒤에 저장하면 된다. 수정 가능 기간 내에는 전공 선택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간 종료 후에는 그 다음 학기에 전과를 통해 학과(전공)를 변경해야 한다.

전과 신청 및 전공 선택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전과 결과는 7월 4일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전과할 경우,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맞춰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전과는 쉽지만, 졸업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과 신청 게시글 유의 사항에서도 전과 및 전공 선택을 한 학생은 졸업학점 취득을 위하여 초과 학기를 등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과 및 전공 선택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교직 이수자는 전과하면 교직 이수가 취소된다. 이러한 유의 사항을 잘 확인하고, 전과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

기사 | 마경진 기자(alfpwnsg12@jj.ac.kr)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디자인 | 권주익 기자(ehehtk@jj.ac.kr)

# 대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학업 스트레스



2020년, 잠코리아와 알바몬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 기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행복지수'보다 15.5점이나 높은 평균 68.8점으로 집계됐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현재 행복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대학생은 10명 중 3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학업 문제, 진로 및 적성 고민, 대인관계 문제 등이다. 가톨릭대학교에서 진행한 대학생들이 겪는 요인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학업, 시험과 평가 등의 '학업 관계'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학업은 한국 대학생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었다.

이렇듯, 많은 대학생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 건강 증진과 대학 생활 적응에 필수적이다. 반면 대학생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8%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협하는 학업 스트레스, 번아웃(burnout)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기회인 동시에 위기라고 표현한다. 학업에 있어 적당한 스트레스는 경쟁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의 효율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강도와 기간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저항력이 떨어져 다양한 문제를 가져오는 디스트레스(distress), 즉 병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된다.

학업 스트레스의 증상은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징후 등 다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생리적 증상으로는 긴장성 두통, 소화장애 및 위궤양, 복통 등이 있으며 심리적 증상에는 무기력증, 정서적 혼란, 압박감, 지속적인 불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행동적 증상으로는 부적응, 체중 변화, 언어장애, 폭력, 약물남용, 자살 기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해야 할 공부를 계속 미룰 정도로 만사가 귀찮거나 의욕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가슴이 답답하며, 만성적인 불안, 피로 등을 겪는다면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업 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학업 소진, 즉 번아웃(burnout)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신적 탈진과 소진을 의미하는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일이나 학업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이나 무기력 등을 느끼는 증상이며, 특히 학업에서 겪는 번아웃은 학업 소진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심한 불안감과 자기혐오, 분노, 의욕 상실 등을 동반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1차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 관련 문제 현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 적절한 예방과 치료 필수적, 방법은?


이처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대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며, 이러한 문제는 자신의 학업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이를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혹사할 때 주로 나타난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를 관리 방법을 알아두고, 이를 조절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 중 가벼운 스트레스를 느낄 경우에는 적절한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기분 전환이 되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갖는 것이 좋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은 일상생활에서 혹사와 소진, 자책을 막을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를 찾아 정확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심신 안정을 위한 이완 훈련과 부정적인 사고를 개선하는 상담 치료가 있으며 이 밖에 인지치료, 정신 치료, 약물치료 등을 수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상담 치료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약물치료, 이완 훈련, 인지행동치료 등을 병행한다.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으로 인한 중도 탈락을 막고, 학생의 학습 관련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우리 대학 카운슬링센터를 방문하면 성격에 따라 행동양식을 평가하고 학습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U&I 학습유형검사'와 개인의 학습 전략을 이해하고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MLST-II 학습전략검사'를 진행한 후, 전문가의 분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심층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거나 '찾아가는 카운슬링센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사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디자인 | 김예진 기자(ye\_yejin@jj.ac.kr)

 전주대신문은 이번 940호를 끝으로  
2024학년도 1학기 신문 발행을 종료합니다.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2학기에 941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센터 대학신문사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간 | 최소담  
편집장 | 강수아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제16회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가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됐다. 주제는 총 네 가지로, '역사는 정말 진실의 기록인가?', '사랑은 존재인가, 소유인가?', '인공지능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은 무엇일까?', '왜 MZ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한가?'였다. 대회에는 총 233명의 재학생이 참여했으며 5월 29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그 중 대상을 수상한 김은지(게임콘텐츠학과 24) 학우의 '유채의 고백'을 만나보기로 한다.

(사랑은 존재인가, 소유인가?)

유채의 고백

스승님께

3월의 여드레, 작년 가을 사횡 앞에 함께 심었던 유채가 꽃봉오리를 터뜨렸습니다. 창틀 사이로 셋노란 꽃잎이 좌우로 팔방이 는 게 보일 때마다 스승님의 뺨을 타고 흐르 던 눈물이 생각나 마음이 심란합니다. 사죄를 드리고자, 또 감정을 고백하고자 쓰 는 이 편지는 아마 제 유서가 될지도 모릅니 다. 글씨를 담는 데에 어떠한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소녀의 미소와도 같은 마지막 편지입 니다.

패랭이꽃은 염절炎節, 구절초는 백장白藏, 동백나무는 동계冬季, 유채는 감춘酣春에. 꽃들에는 저마다 알맞은 절기가 있어서 개 화하는 시기가 제각각입니다. 사람에게 좋 고 싫고가 있듯이, 꽃들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어서 계절을 가립니다. 쓰름매미 울음소 리의 정겨움을 좋아하는 패랭이꽃은 햇빛이 가장 왕성한 날에 피어납니다. 약초인 구절 초는 자애심이 강한지라, 수렴채집이 수월 한 시기에 모습을 보입니다. 피약법을 꺼리 는 동백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버릴까 봐 불 투명한 서리 밑으로 숨습니다.

스승님은 제게 학문보다 꽃들의 감정을 알 려주셨습니다. 이끌림과 자비, 그리고 공포, 그 누가 규칙이나 명령을 부여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의지로 사계절 중 하나를 선택해 개화하며, 씨앗은 타인이 심지만 의지는 그 누가 대신 심을 수 없다. 또한,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저는 마음이 향하는 의지에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결핍하면 세 살 터울 오 라버니에게 무언가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있노라면 도둑고양이처 럼 제 옆에 소중히 놓아둔 책 구슬을 순식간 에 훔쳐 달아났습니다. 완호지물이나 단 과 자들도 전부 오라버니의 차지였습니다. 이 욕구 저는 더 이상 무엇도 잃고 싶지 않아 집안의 물건들을 소유하는 데에 전념했습니 다. 먼지를 뒤집어쓴 문적부터 시작해 그림 책, 붓, 뒤꽂이, 심지어 문틈 사이에 낀 머리 카락 뭉치마저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제 의 지에는 문득 집안의 물건들을 소유하겠다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기어이 싹튼 저의 소 유욕은 종잡을 수 없이 기세를 뻗었고, 결국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감정에도 치명 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을 갖고 싶었습니다.

학문을 알려준 사람, 술잔을 기울일 수 있 는 유일한 사람, 꽃을 좋아하게 해준 사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머릿속에는 스승님 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문적을 보면 글씨가 눈에서 튀겨져나가 고개가 좌우로 가우똥거 려했습니다.

좌로, 유채를 심을 때의 다정한 두 손. 우로, 유채의 개화를 고대하는 불그레한 뺨. 으레 연심을 품은 소녀들이 그러하듯. 저도 언젠가 필 사횡 앞 유채꽃밭을 함께 바라보 며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붉어진 얼굴로 약지에 꼬인 옥가락지를 매만지는 스승님의 모습을 보 고, 제 결심은 금세 유채의 씨앗과 함께 묻히 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의 저는 사랑조차 소유하는 것이라 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양갈음으로 오라버니 의 아끼던 붓을 뺏아왔던 것처럼 스승님의 마음도 간단히 뺏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 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을 해버렸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작은 종이에 제 커다란 감정을 담아 고백하려 합니다.

작년 동짓날, 스승님의 부인을 죽인 건 바 로 저입니다.

그날은 맹렬한 취설이 산꼭대기를 깎아내 릴 기세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인의 가녀린 손을 잡아 함께 설산 을 올랐고, 정상에 다다랐을 때 실오라기 하 나 걸치지 않은 그분을 홀로 남겨두고 발걸 음을 옮겼습니다. 잔약하게 나부끼던 머릿 결과 함께 아무런 저항 없이 우뚝 서 있던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위태롭지만 아스라 이 피어오르는 꽃과도 같아서 두렵기조차 했습니다. 아마 눈이 녹고 봄이 찾아오면 상 춘객들이 가장 환호하는 수려한 꽃 한 송이 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 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방 안에 드러누웠습니다. 부인의 꽃땀던 마지막 모습을 뇌리에서 잊고 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장판 패기의 틈새에서 얼어붙어 죽은 날벌레 가 보였습니다. 또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이번에는 따듯한 장롱 사이에서 날벌레 두 마리가 짹짹하고 있었습니다. 시드럽게 양 날개를 부비는 그 모습은 참으로 혐오스

럽기 그지없을 텐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깊 숙이에는 황홀감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스승님은 제 차치라는 생각에 복받쳐 입꼬리를 주체 못 하고 씩씩거렸습니다. 그 리고 여전히 몸을 낫 채 검지로 바닥을 훑으 며 앞으로의 일들을 적어갔습니다.

다음날 만나 보면 함께 화요 장터에 들림 시다.

저갯거리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녀를 찾은 일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습 니다.

함께 걷다 지치면 비탈을 내려가 꽃을 구 경합시다.

유채는 없지만 강설을 뚫고 핀 복수초가 예쁘답니다.

스승님과 함께하고 싶은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검지를 훑고, 훑고, 또 하염없이 손 끝이 닳을 정도로 훑었습니다. 하지만, 그렇 게 부푸는 마음으로 사횡을 찾아갔을 때의 스승님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희뿌연져 있었 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쏟아냈는지 부르튼 눈꺼풀 과 가슴팍을 쥐 뜬 탓에 풀어헤쳐진 옷, 절 을 올리듯 연거푸 바닥을 쓸어내려 빨개진 다섯 손가락, 열이 올라 이마에 맺힌 구슬땀 까지, 뭐 하나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냘프게 변해있었습니다. 그날 설 산에 두고 왔던 한 송이의 꽃보다 더 위태로 웠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을 감았다 뜨면, 겨울 안개와 함께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차마 다가가 지도 못한 채 한없이 들썩거리는 등만 바라 보다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슬아슬하게 휘청이던 스승님은 부인과 함께 유채밭을 걸으러 떠났습니다.

스스로 부재를 선택했다는 스승님의 소식 을 듣고 나서야 전 스스로가 무슨 짓을 저 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빌어먹을 소유욕이 기어코 제 살을 파먹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 는 집안에 틀어박혀 애꿎은 가족들을 원망 하기도 하고, 피나는 열중으로 얻어냈던 물 건들을 닦치는 대로 벽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머지않아 아버지가 애중하 시던 술병을 깨고 말았고, 전 집에서 맨발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나선 발걸음은 지면을 잃어버린 듯 주춤거렸습니 다. 눈앞이 캄캄해서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

조차 가늠이 가지 않았습니다.

폴짝,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윽고 저는 인간다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 리며, 잃어버린 스승님을 되찾으려는 듯 두 손으로 바닥의 흙을 그러모으고 흠뻑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뒤집자 남은 건 주름살 사이로 낀, 절 비웃듯 반짝이는 모래 알뿐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전 스승님을 갖은 적도, 잃어버린 적도 없었으니까요.

전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겨우 붙잡으며 지저분한 손바닥을 털었습니다. 그 순간 바 람이 불어 모래알이 눈에 들어가고 말았습 니다. 또다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저,

바람이 불 듯이,

숨을 쉬듯이,

심장이 뛰듯이,

유채가 봄에 피어나길 선택했듯이,

사랑 또한 소유가 아닌 존재였거늘.

저는 지금까지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 어 리석은 파랑의 눈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세상을 뜬 후 몇 개월이 지난 지 금도 멍청한 저의 죄책감은 목에 파리를 튼 듯 숨통을 옥죄입니다. 드문드문 새벽마다 눈꺼풀 위로 유채잎이 나부깁니다. 손을 뺐 어 잡으려고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유채 잎은 온데간데없고 한결같이 어두운 천장만 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미간이 미치도록 지끈거렸습니다. 천장이 저를 억누르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 습니다. 역시 제 마음은 한낱 종이에 다 담 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제 와서지만...

저 또한 스승님과 부인의 발자국을 따라나 서서 사죄를 전하고자 합니다...

붓을 쥐 피리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을 올립니다.

제자가 아닌 당신을 향한 단 한 명의 소녀 다운 고백입니다.

저는 당신의 유채꽃이 되고 싶었습니다. 소유가 아닌, 그저 사랑하는 마음. 당신을 만나기 위해 봄날에 피어나길 선택한 한 떨기의 노란 유채로.

제자 올림

<소감문>

우선, 이렇게 멋진 글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창의적 글쓰기 경진대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저 취미로 단편 소설 몇 편 써본 저에게 대회 수상이란 한순간에 날아 온 유성처럼 반짝이는 기쁨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담은 글이 누군가에게 읽혀지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특히 글의 주제가 '사랑은 존재인가, 소유인가?'인 만큼 더욱 제 마음을 담아, 평소보다 몰입해서 쓰게 됐습니다. 소설 속 에서 저는 티 묻지 않은 순수함보다 집착의 표독스러움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글 속에 사랑의 실패를 담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집착으로 사랑을 더럽히지 말아 줬으면 하는 염원을 빌었습니다.

사랑은 옷과도 같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실밥이 뜯어지듯이, 무리하게 쟁취한 사랑은 머지않아 찢어집니 다. 가끔은 '인연이 아닌가 보구나' 하며 놓아주는 담백함도 저희에게 필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바람 이, <유채의 고백>을 창작하게 된 작은 씨앗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에 유채꽃을 피워내 는 글을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소감문을 마칩니다.



김은지(게임콘텐츠학과 24)

기사 |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디자인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 60주년 기념 JJ SUPERSTAR CAMP 개최

**개교 60주년 기념 JJ SUPERSTAR CAMP 2024**

이제 우리의 수업을 처음 경험해보는 대학생들에게는 'WAKE UP!' 캠프가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번 캠프는 전국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과 신앙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는 'WAKE UP'으로 침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2024.7.29. ~ 7.31.**

장소: 전주대학교 Superstar홀 (참가비 78,000원(과외비용 포함) 선착순 한정 지원) 대상: 전국 중·고등부학생  
1회 4명만: 2024.6.30. 화요일 14:00(13:30) 2회 8명: 7.1. - 78,000원  
문의전화: 063)220-2103, 3148

QR 코드

우리 대학은 오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JJ SUPERSTAR CAMP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전국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과 신앙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제는 'WAKE UP'으로 침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강사로는 위러브(Welove)의 박은총 대표, 이성형 목사, 서종현 선교사, 김성경 전도사, 김선교 선교사, 임우현 목사가 참여하며, 신학과경배찬양학과 리스트 워십(Least Worship)이 예배를 섬긴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사전 접수는 6월 30일까지 30% 할인된 금액(54,600원, 미자립교회 무료)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063-220-2103, 3148)로 하면 된다.

주관: 선교봉사처/신학과경배찬양학과 | 후원: 전주대학교, 전주대발전위원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주사기독교총연합회  
주최: CBS, CTS 전북방송, GOOD TV 기독교방송 | 전담: CBMC, 전북기독교신문, 심원장신교신문,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주사기독교총연합회, 크리스찬전력

선교지원실 오예찬(ssd5205@jj.ac.kr)

### 예배안내

####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선교지원실에서는 교직원 및 학생 중 건강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 2024년 1학기와의 이별하며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화려하고 유쾌한 날보다 어둡고 외로운 하루에 밀줄을 긁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날에는 녹색을, 아프고 고단한 하루에는 청색을 칠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날들은 타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해로운 날들은 타인에게 적잖은 유익을 베풁습니다. 좋은 날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날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타인을 나의 연장된 자아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에게 좋아도 좋은 날이고 타인에게 좋아도 좋은 날입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날을 기억하며 그때가 여호와 신뢰가 웃는 날이라고 적습니다. 그 신뢰가 준 하나님의 위로는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밑천으로 쓰인다고 말합니다. 나에게서 사망처럼 고단한 날도 타인에게 생명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날로 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불행한 날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는 선을 이룹니다. 나에게 불행한 날일수록 더 굽고 선명한 감사의 밀줄을 두 번 긁습니다.

타인을 볼 때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싱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꺼낸 한 편의 저항시 같은 사람을 만나면 몇 개월의 절망도 버틸 힘을 얻습니다. 고난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동시에 타인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에 결코 밟지 않습니다. 이번 학기에 노크도 없이 우리 각자를 찾아온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들의 등에 '감사'라는 라벨을 붙이며 학기를 떠나보내시면 어떨까요?

## 기도문

### 기대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오,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주대학교를 사랑하셔서 60년 동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설립된 전주대학교가 60년의 긴 세월동안 설립자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캠프에 찬양과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전주대학교 모든 구성원들과 동행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사랑이 느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흠 뭍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저희도 학생들을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학생들에게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가 존중하며 섬기는 전주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전주대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갖고, 각자의 전공을 배워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생들에게 전주대학교에서의 대학 생활이 인생에서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넘치는 전주대학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전주대학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전주대학교!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로 기대가 되는 전주대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선재 계장  
(직원신우회장·시설지원실)

## 교수칼럼

### 잠자고 있던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을 깨우자!



박문철 교수  
(문화융합대학 영화방송학과)

10년 전, 처음 만든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플레이스>가 북미 최대의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캐나다 핫닥스(Hot Docs) 영화제에 초청이 되었을 때,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젊은 영국 감독이 헐리우드 청춘 영화들의 주요 장면들을 편집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원 저작자의 허락은 물론 돈 한 푼 내지 않고 영화 소스를 가져다 썼다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미국에서는 전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미국 저작권법에 있는 '공정 이용'(fair use) 조항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수도 있겠다. 특히 한국처럼 지난 20여 년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는 것은 절도와 같이 심각한 범죄라고 교육을 해온 사회에서는 더더욱 의아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자의 권리보장도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이익과의 균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법의 목적을 살펴보자.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지에서부터 '공정한 이용'이 언급되고 한 사회의 문화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한 사회의 학문과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선 사람들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학자가 타인의 논문을 인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면 과연 학문적 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기사가 기사를 쓰면서 사회지도층의 발언을 인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면 제대로 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듯 이미 우리 주변에는 우리 문화의 발전을 위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예외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이지만 사회 전체

의 이익을 생각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고,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한 사회의 지적 공유지대가 넓어질수록 그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가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공정 이용' 조항이 있는 것이다. 한국도 2011년부터 저작권법 35조 5항에 '공정 이용' 조항이 신설되었다. 앞서 말한 영국청년이 만든 영화가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미 2011년부터 합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용이 '공정한'(fair)한 이용인가? 앞서 이 조항을 적용해 온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본다면 중요한 것은 원저작물을 2차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기존 목적과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정도가 적절한가, 여부이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결국 원저작물의 시장가치를 얼마나 잠식했는가에 있다. 앞서 말한 영국 감독은 수많은 헐리우드 청춘영화를 관람하고 분석한 결과, 청춘 영화에 꼭 등장하는 캐릭터 유형, 스토리 전개 방식 등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영화에 담았다. 즉,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청춘영화 관람)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창조해 낸 것이다. 또한 영화 전체를 통째로 유통시키는 불법 다운로드와는 다르게 원저작물의 일부만 인용했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이라 볼 수 없고 해당 영화의 시장 가치를 침해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런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켰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된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만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풍토에서 벗어나 잠자고 있던 '공정 이용' 조항을 깨울 때이다. '공정 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창작자들이 고소 고발의 두려움이나 천문학적 비용 부담에 대한 염려 없이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예술가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기자칼럼

### 무단 투기 만연한 담배꽂초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누군가 하수구에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에서 불이 붙은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모닥불을 피워둔 것처럼 선명한 하수구 안의 불길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수구에 폐탄이 많은 상황에 꺼지지 않은 담배꽂초가 들어간다면 폭발할 위험이 크다. 하지만 우리 대학 주변을 걷다 보면, 골목,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꽂초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 위험은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소방청에서 화재 통계연감을 통해 지난 10년간 화재의 주요 원인을 밝혔다. 가장 많은 발화 요인은 '부주의'로 50%에 달했다. 그리고 부주의 요인 중에서 '담배꽂초'가 30.5%로 1위를 차지했다. 산불의 시작이 흡연자가 버린 담배꽂초에서 시작됐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기도 한다. 특히 건조한 계절인 가을과 겨울에는 강한 바람을 만나 대규모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담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다양한 피해가 나타난다. 먼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야간이나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처가 늦어져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재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주택, 아파트, 상업 건물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자체와 내부의 가구, 전자기기 등 재산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복구와 재건에 비용을 수반한다. 누군가의 부주의가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주의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 적절한 폐기물 처리 방법 교육 등이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흡연 구역의 이용, 담배꽂초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더욱 심각하게도 담배꽂초는 화재 위험 외에 다른 문제도 야기한다.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수구에 모여있는 담배꽂초가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담배꽂초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담배꽂초는 분해되는 데 수십 년이 걸리는 플라스틱 성분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져 있다. 이 물질은 자연 분해에만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런 담배꽂초가 길거리에서 버려지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

다. 마지막으로 담배꽂초가 바다로 흘러가기도 한다. 국제해양환경단체인 해양보존센터에서는 해변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의 1/3이 담배꽂초라 밝혔다. 해양 동물들이 담배꽂초를 식량으로 착각하여 섭취하게 되면 소화계 통이 막히거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듯 담배꽂초는 해양 생물에게도 해를 끼친다.

2021년, 환경청과 서울 강북구청이 담배 필터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에 착안해 재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담배꽂초로 옷을 만들거나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담배와 다른 유해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중 일부 전력을 생산하며, 독성물질을 제거해 섬유 물질을 뽑아 내 옷을 만드는 기업도 있다.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재활용 및 거리 미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담배꽂초 수거 보상제를 도입했다. 보상금은 수거한 꽂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쌓였을 때 1g에 20~30원으로 계산한다.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다음 달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유튜브 같은 SNS를 보면 실제로 담배꽂초를 주워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거리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나,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해 작년보다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직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담배꽂초를 적절한 장소에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식당, 비행기, 버스 등 실내 흡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와 시민들의 인식개선으로 현재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담배꽂초 무단 투기는 검거하기 어려운 까닭에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는 길거리의 불청객이 될 뿐이다. 흡연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단 투기는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 담배꽂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흡연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담배꽂초로 인한 사회, 환경 문제는 개인의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한다. 개인의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중요한 시점이다.

## The Selection of Jeonju University, New Human Humanities (HUSS)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at it has been newly selected as a leading university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Talent Development Project,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Talent Training Project aims to break down the boundaries between departments and universities to establish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system and to cultivate the convergent talents needed for the future society. A total of eight project groups will be operated, with five starting in 2023 and three in 2024.

Jeonju University is the only host university in the Honam region and will jointly conduct a curriculum with participating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Dongguk University), Gangwon area (Hallym University), Chungcheong area (Hannam University), and Yeongnam area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theme of "Creating Local Value in the Local Era." The university will develop and operate this curriculum while promoting academic system reforms to facilitate material and human exchanges.

The Jeonju University Consortium plan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convergence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over the next three years, with the aim of fostering "Local C-nergy" convergence talents who will lead regional innov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creating future value through regional value innovation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shared network." Based on this, the consortium will operate joint degree programs and micro-degree expert courses specialized for each university.

Jeonju University Professor Lee Yong-wook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Creation), the head of the project, said, "Jeonju University has always been at the forefront of innovation and co-prosperity, and we should continue to excel in this area. We will lay the foundation for transforming into a global glocal university by combining regional specialized values of culture and tourism with innovative values of digital transformation."

article College of Humanities and Contents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Jeonju University, Jeonbuk Regional University PSST Start-up Simulation United Camp's Completion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Start-up Education Center announced on the 31st that it successfully completed the 'Jeonbuk Regional University PSST Start-up Simulation Camp' for 43 university students interested in starting a business.

The event, held by a coalition of eight universities in Jeollabuk-do, aimed to develop business ideas based on each team's concepts, allowing students from these universities to strengthen their start-up capabilities and produce and present promotional posters for their ideas.

Eight universities in North Jeolla Provi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University, Wooseok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Jeonju Vision University, Gun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Agricultural and Fisheries University, and Jesus University.

The camp, which took place over one night and two days from the 30th to the 31st, was organized based on PSST (Problem, Solution, Scale-up, Team) standards, which have become the standard for recent start-up business plans, including those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Korea Start-up Promotion Agency.

The detailed steps included: [1] Business team building for moving startups, [2] Start-up trends and item search & selection, [3] Establishing start-up ideas and business models, [4] Promoting start-up items and conducting a practice-oriented start-up camp.

Kang Byung-cheon, a student at Jeonju University (Smart Media Department), who participated in the camp, said, "The way each team became an investor and wrote a letter of intent to invest in the presented items was really new. I want to further develop the idea we created using an idea canvas by participating in Jeonju University's Start-up Education Center programs."

Kim Ki-jung, head of the Center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said, "We will continue to operate various programs so that our students can continually discover start-up opportunities."

article LINC3.0 Project Group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Jeonju University Successfully Holds a Creation Camp for Universities in Jeonbuk Region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at it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job creation camp for the Jeonbuk Regional University.

Hosted by Jeonju University and jointly organized by Wooseok University and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Jeonbuk Regional University Association Creation Camp" was held at the Mohang Haenaru Family Hotel from May 31 to June 1. This event was a creative idea contest using design thinking, and about 50 students from Wooseok University,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Jeonju University participated.

The camp was designed to cultivate the creative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of college students. It applied the design thinking methodology to suggest innovative job creation ideas that could respond to future changes in the professional society based on their majors. Participants formed teams to derive, develop, and present their ideas.

Various creative ideas were proposed during the competition, with participants engaging in heated discussions and collaborations to present original and feasible concepts. Additionally, awards were given to teams presenting the most creative and innovative ideas. One grand prize, two first prizes, and three second prizes were awarded, providing motivation to participants and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potential of their creative ideas.

Professor Shin Sook-kyung, head of the University Job Plus Center, said, "Through this job camp, students not only learned how to collaborate and think creatively, but also had the opportunity to develop ideas that could be practically applied in society. Jeonju University will continue to support young people in taking the lead in designing the future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article Student employment off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Jeonju University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Jeonju High School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hereinafter referred to as Jeonju University) announced on June 3 (Monday) that it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Jeonju High School (Principal Raguh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Jeonju High School) to cultivate creative talents and develop local communities.

The signing ceremony, held at Jeonju University's main building, was attended by Jeonju High School's principal, Raguhan, and the head of the school affairs department, So Jeong-won. Representing Jeonju University were eight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Park Jin-bae and Director of Admissions Lee Geun-ho.

The main points of this agreement includ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to support education through initiatives such as ▲special lectures by experts in promising future industries ▲mentor-mentee support both online and offline ▲support for educational volunteer activities through student exchanges.

Through this agreement, it is expected that Jeonju High School students will receive support for creative activities and career exploration, enhancing their knowledge and skills in fields such as start-ups and food industries. Additionally, the collaboration aims to foster human resources tailored to industrial demand and contribute to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high school.

Lee Geun-ho, head of the admissions department, who attended the signing ceremony, said, "Through this agreement, Jeonju University and Jeonju High School will maintain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further accelerate the cultivation of creative and future-oriented talents. We expect that the various programs and activities jointly promoted by the two institution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local community and be of practical help to students."

Moreover, Jeonju University is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continuous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education offices, companies, and local high schools to develop local industries and foster talent.

article an admissions office  
translated by reporter Kwon Ju-ik(ehehtk@jj.ac.kr)

## 全州大学成功举办“校长杯”外国留学生尤茨游戏比赛

## 全州大学与上海建桥学院签署合作协议



全州大学(校长:朴珍培)于6月1日(星期六)在明星中心(스타센터)哈林使命大厅(하림미션홀)与全北特别自治道韩国民俗尤茨协会(会长:李正爱,音译)共同举办了外国留学生尤茨游戏比赛。

负责对外交流的副校长尹灿荣教授到场致开幕词。他说:“感谢地区社会的各种支持和鼓励,希望与地区社会合作的此次比赛能圆满成功。也希望外国留学生参与更多的社会活动,成为地区社会的一员,并以此提高韩语和韩国文化方面的知识。”

本次尤茨游戏比赛由全北特别自治道韩国民俗尤茨协会主办,全州大学承办,旨在向外国留学生介绍韩国的传统游戏。比赛共有来自5个国家的114名全州大学在读留学生组成28支队(每队四人)参加,以淘汰赛的形式进行。此次比赛得到了高丽医院、光元机械、大慈仁医院、全州大地教会(The Onnuri Church)、首尔S牙科、阿中养老院、Woori Hangaeg外科、全州长东教堂、Plus建设、孝爱医院等社区机构各种形式的赞助。此外,邀请无形文化遗产笔峰(音译)农乐传承者李仁焯(音译)先生和任实郡笔峰农乐传统公演艺术团风流村团员进行了传统公演。歌手周彩妍(音译)也为外国留学生们献上了精彩的表演。

获得比赛冠军的越南留学生代表布提夫昂推(音译,经营学、四年级)说:“每场比赛的紧张氛围和胜负带来的刺激感都成了难以忘怀的经历,而这种经历让我对韩国的传统游戏文化有了更深入的了解。”他还表示,这个比赛让他对韩国的风韵和美有了新的认识,也因这样的新体验感谢主办这次比赛的全州大学国际交流院。

另外,此次由全北特别自治道韩国民俗尤茨协会主办的外国留学生尤茨游戏比赛是韩国首次。该协会是全北地区的国家无形文化财,正活跃地开展着各种活动。

据全州大学国际交流院消息,5月31日全州大学与中国上海建桥学院在大学中心楼接见室举行了业务合作协议签署仪式。全州大学朴珍培校长和上海建桥学院朱瑞廷校长到场参加仪式。

位于上海浦东机场附近的上海建桥学院是2000年成立的私立大学,目前在校学生人数达到2.5万名。作为一所私立大学,规模相当可观,并且拥有一所全部课程以英语授课的国际设计学院。国际设计学院的院长是韩国人金亨锡教授。金亨锡教授不仅参与设计了韩亚航空和Olive Young等公司的企业设计,还负责了又松大学SolBridge的设计以及全州大学的标志设计。

全州大学计划从2025年9月开始运营英语授课课程。此次与上海建桥学院签订了交换生项目。全州大学的英语授课课程可以减少中国交换生学习韩语的负担,而全州大学的学生们也有机会在上海建桥学院更好地学习专业知识和英语。此次合作协议将开启全州大学和上海建桥学院互利互惠的未来。

### 독자투고

## SFC의 여름나기



2023년 여름 전국대학생대회, 전북U 단체사진



2024년 1학기 종강큰모임, 전북U 단체사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방송학과 21학번 재학생이자, 중앙동아리 종교분과에 소속된 SFC의 회장 송단비입니다. 방학이 되면 저희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하고 싶어 독자투고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SFC는 학원복음화협의회에 가입된 기독교 선교단체이며, 'STUDENT FOR CHRIST'의 약칭으로 '학생신앙운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를 운동원이라 지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SFC는 '종강큰모임'이라는 행사로 방학의 시작을 알립니다. 개체 학원(대학)의 지역 연합을 U(UNION)라고 부르는데, 전주대 SFC는 전북 U에 소속되어 있어 지난 6월 4일, 원광대, 전북대 학생들과 함께 전북U 종강큰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종강큰모임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SFC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대회'가 열립니다. '대학생대회'는 1년에 두 차례 열리며, 여름에는 전국의 대학생 운동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대학생대회'를, 겨울에는 '지역별 대학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의 운동원들을 만나 교제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련회라 모두 '대학생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FC에서는 비전트립, 전도여행, 방중모임, 종교생대회 등 방학기간 중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과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도 SFC 같은 선교단체가 아니더라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율 방 재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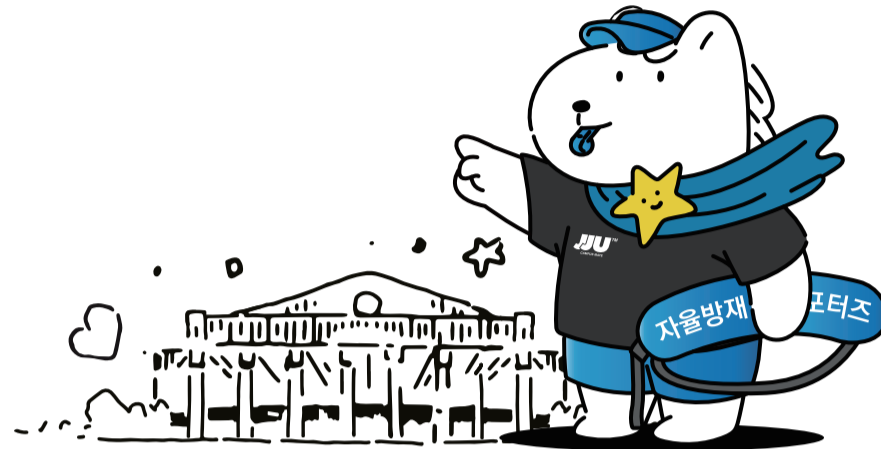
# 서포터즈 모 집



## 자율방재단이란?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주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자율방재단 서포터즈는  
전주지역자율방재단,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주대학교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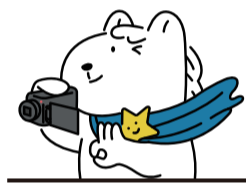
## 주요 활동 📍



재난 예방 활동



재난 안전 교육



콘텐츠 제작

### 활동 혜택

- 활동비 또는 봉사 시간 부여
- 드론·응급 처치 등 자격증 무료 교육  
\* 세부 교육 과목은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 한국전기안전공사 직무 멘토링 운영
- 위촉장 및 연말 우수 단원 표창 수여

## 지원 방법 📍

- 1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2 공지사항(일반) 모집 게시글 확인
- 3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4 이메일(anjeon@kesco.or.kr) 제출

### 지원 및 활동 문의

DM 또는 전화 문의 \*문의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063-716-2317, 2315

## 모집 일정 📍

- 모집 기간  
2024. 6. 17.(월)~6. 30.(일)
- 합격자 발표  
2024. 7. 5.(금) \* 개별 연락 예정
- 사전 교육  
2024. 7. 8.(월)~7. 12.(금)
- 활동 기간  
2024. 7.~2025. 2.

### 서포터즈 교육 목록

- 기본 과정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재해구호,  
산악안전법,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파법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심리사회적지지 등
- 전문 과정  
응급처치(강사과정), 인명구조요원,  
산악안점법(전문·강사), 드론 체험교육,  
재해구호(전문), 다이버 레스큐 등

\*이외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교육 수강 희망 시 교육비 지원

